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영화 동회회는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 24일(수) 저녁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축하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 25일(목) 오전 11시 성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좋은샘 윈드 앙상블이 주최하는 성탄연주회가 오늘 오후 5시 서울예술고등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교회 참빛 찬양대와 오카리나 연주단도 출연합니다.

다음 주일(28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올해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09학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부 1명, 아동부 5명, 중고등부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와 온풍기와 같은 난방기구의 설정 온도를 1℃씩 낮추고 지내보십시오. 지구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2855 이원영(5남)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어둠이 가장 깊어진 동지(冬至)의 시간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능한 자신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빛을 받아서 기쁜 얼굴로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웃들과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병구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권호천 윤미경 임주빈 최현옥 정복순 조병주
조문규 진정숙 권미숙 김필순 김경연

월정헌금:

김종문 지명주 김정애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배부례 송임희 이갑재
이광섭 김수연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전영자 이소순 권 순 윤정화
이경남 박준규 서지영

감사헌금:

김재흥 문금석 이순정 이송희 오정숙 전성오 박병구 최항열 이정은
박정숙 무명7

생일헌금:

박성실 이경남 서원금

녹색꿈헌금:

윤석철 최윤희 배삼순 장원호 박성희 최윤선 윤주원 김순자 임영선
(계 : 8,141,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한 비밀

사시사철 나는 / 할 말을 못하여 몸살이 난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며
 다만 절실한 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 절실한 것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행복... / 애정... / 명예... / 권력... / 재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일까 / 실상 /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니었을까

가끔
 머릿속이 사막같이 텅 비어 버린다
 사물이 아득하게 떨어져 가기도 하고
 시간이 / 현기증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그게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비밀 때문이 아닐까

- 박경리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가 거짓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삶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내려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탄맞이 축하행사
사진, 영화, 자전거, 브라스밴드 등	교회학교 주관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연태호 선생 김인걸 장로	인도자 서정순 집사

12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훈동 정원석 박혜경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산토 도밍고의 전설들

열한 시 반, 오늘의 목적지인 ‘산토 도밍고 데 라 칼사다 Santo Domingo de la Calzada’에 도착. 이 마을에 이렇게 긴 이름이 붙게 된 건 산토 도밍고라는 한 성인 덕분이다. 가난한 양치기였던 그는 수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학업성적이 워낙 부진해 수도원 입학은 거부당했다. 그래도 그는 평생 종교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오하 강 주변의 숲속에 은거하며 순례자들을 위해 길을 닦거나 다리를 놓으며 평생을 보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기도를 위해 잠시 길 닦기를 멈추면 천사가 내려와 그의 낫을 들고 일을 했다고 한다.

산토 도밍고의 전설을 듣다 보니 언젠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쓴 <성모님의 곡예사>란 단편이다. 가난하고 비천한 곡예사 바르나베,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수도원 원장을 만나 신세한탄을 한다. 바르나베를 불쌍히 여긴 수도원장은 그를 수도원에 받아들인다.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찬송가를 짓기도 하는 등 다양한 재주로 하느님과 성모님을 섬기고 있었다. 무식한 곡예사 바르나베는 하느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슬퍼했다. 그런데 언제부 터인가 다른 수도사들은 토론이나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시간이면 바르나베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수도자들이 어느 날 바르나베를 미행하여 그가 들어간 성당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 그건 바르나베가 성모상 앞에서 물구나무를 선 채 접시를 돌리고, 열두 개의 칼을 들고 곡예를 부리는 모습이였다. 신성모독이라며 분개한 수도자들이 뛰어 들어가 그를 끌어내리려는 순간, 성모님이 제단 위에서 서서히 내려오더니 자신의 푸른 옷자락으로 바르나베 곡예사가 흘린 땀방울을 닦아주셨다.

언젠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왜 나를 울리는 걸까? 이 세상의 재주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못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마다, 나는 물론 했다. 내게는 무슨 꽃을 피울 재주가 있을까 하고, 내 안에도 아직 피지 못한 채 봄을 기다리는 작은 꽃씨 하나쯤은 있겠지. 아직 내 안에서 채

피지 못한 꽃들이여, 너무 늦기 전에 일제히 피어오르렴!

저녁을 먹고 난 후 산토 도밍고 성당의 닭 두 마리를 보러 갔다. 암탉과 수탉을 보러 성당에 간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이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닭들을 보기 위해 성당에 온다. 과연 성당의 동쪽 벽에는 고딕 양식의 닭장이 있고, 그 안에 하얀 닭 두 마리가 퍼덕거리고 있다. 이 닭에는 멋진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때는 14세기. 한 독일인 청년이 부모를 모시고 하녀와 함께 산티아고로 성지순례를 가는 길이었다. 젊고 잘생긴 청년에게 반한 하녀가 마음을 고백하며 뜨겁게 유혹을 해왔지만, 우리의 청년, 냉담하게 모욕을 주며 응하지 않았단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제정신을 잃은 하녀는 흙친 금술잔을 그의 가방에 넣었고, 그 뒤는 뻘한 순서로 전개된다. 청년은 절도죄로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한다.

절망하고 좌절한 청년의 부모는 그러나 신앙심 깊은 이들이라,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와중에도 순례를 계속한다. 순례를 마치고 산티아고에서 돌아오는 길, 인정 많으신 우리의 신은 이 신심 깊은 부모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으니!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이 교수대에 매달린 모습 그대로 살아 있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 흥분한 부모는 마을의 읍장에게 달려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아들을 교수대에서 내려달라고 사정한다. 읍장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다. 그는 경멸적인 말투를 숨기지 않으며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이 식탁의 구운 닭 두 마리도 살아 있겠구려.” 그러면서 구운 닭을 포크로 찍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 이 닭 두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서는 요란하게 울어댔다. 결국 청년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부모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 청년은 더욱 열심히 신을 섬기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 이후 이 마을의 성당은 매달 닭 두 마리를 새로운 닭으로 교체해 성당 안에 가두는 의식을 몇 백 년 동안 이어왔다. 이 닭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례자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 내내 행운이 함께한다기에 귀를 기울였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닭들은 울지 않는다.